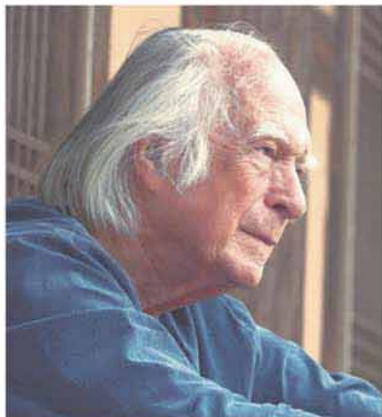


옥스퍼드 대석학, 한국 사찰에서 답을 찾다

영국의 생물학자와 한국을 대표하는 네 스님이 찾은 아주 오래된 지혜, 『오래된 질문』



▶ 『오래된 질문』에서 스님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옥스퍼드대의 데니스 노블 교수. 생물학계의 대석학이자 이 시대 가장 논쟁적인 과학철학자. 독창적인 생명 이론으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반박한 것으로 유명하며 노벨상 후보로도 수차례 거론됐다. 그는 자신의 과학 이론과 불교 사이의 신비한 교차점을 발견한 후 엄청난 환희에 휩싸였고, 한국 사찰여행까지 떠나게 된다. 그와 스님들이 나눈 통찰은 인류가 가장 오래 품어온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줄 것이다.

세계적 과학자는 왜 아내를 잃은 후 이 철학에 빠졌을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질문과 마주하는 순간이 온다. 삶은 왜 괴로운가? 나는 누구인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들이다. 다큐멘터리 《Noble Asks》 제작팀은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 위해 세계적 생물학자 데니스 노블에게 한국 사찰 여행을 제안한다. 그는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는 기존 학계 이론을 반박하고 생명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론을 내세워, 노벨상 후보로도 여러 번 거론된 저명한 과학자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 이론에 정통한 데니스 노블도 아내의 투병과 죽음 앞에선 무력했다. 아내 역시 촉망받는 과학자였지만 노년기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

게 되었고, 그는 아내를 15년이 넘도록 보살피며 고통과 삶의 문제에 천착하게 됐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삶은 왜 이리 고통스러울까?” 아내가 죽은 뒤 죄책감과 분노, 알 수 없는 원망까지 느끼게 된 그에게 불교철학과의 만남은 운명과도 같았다.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는 가르침은 그의 유기적 생명 이론과도 끈장 맞닿아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명상과 수행, 철학 공부에 매진했으며 특히 다큐멘터리 촬영으로 시작된 한국 사찰 여행을 통해 내면 깊은 곳에 평화와 안정을 얻었노라고 고백한다. 마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으며 말이다. 그 과정을 내내 지켜본 다큐멘터리 작가 장원재는 내면 깊은 곳을 건드리는 과학자와 스님들의 대화를 빠짐없이 기록한 뒤, 가장 아름답고 깊은 메시지만을 선별해 『오래된 질문』에 정리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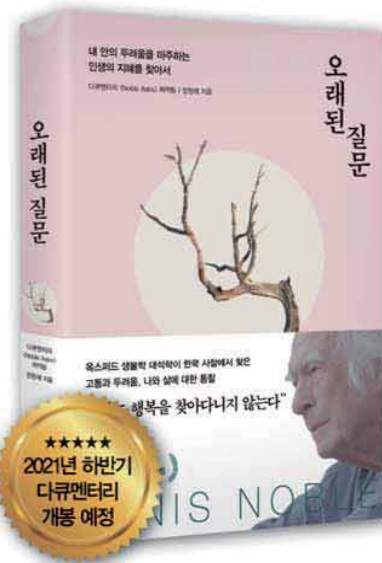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이제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게 됐다”

보통 불교의 가르침을 실생활과 떨어진 모호한 선문답처럼 생각하지만,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사상으로 받아들이면 쉽다. 이 책은 가장 명쾌하고 쉬운 언어로 붓다의 가르침을 전한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신다’라는 문장을 이를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목이 마르는데 정좌하고 명상하면 갈증이 사라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살아가면 해결될까? 그렇지 않다. 목말라서 생기는 고통은 오로지 물을 마셔야만 해결된다. 대체 자신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원인을 올바르게 직시하는 것, 거기서부터 깨달음은 시작된다.

언제 어디서나 고통은 피어난다. 돈이 없어서, 일이 잘 안 풀려서,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아서... 그런데 정말 그래서 삶이 괴로운 걸까? 가장 큰 고통은 ‘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고통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일차적 고통에 집착해 또 다른 고통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나와 세계의 본질을 명료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 비롯되는 집착과 번뇌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되어 돌아온다. 이런 연쇄에서 벗어나려면 나와 이 세상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한다. 『오래된 질문』에서 과학자와 스님들은 나와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방법을 각자의 언어로 선명히 설명해낸다. 서로 다른 듯 하나로 연결되는 지혜는 동양과 서양, 과학과 종교를 넘나들며 고통과 두려움, 나와 삶에 대한 통찰을 이끌어낸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은 살면서 누구나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질문들의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문의 070-4480-1650



『오래된 질문』
다큐멘터리 《Noble Asks》 제작팀·장원재 지음
다산초당 | 값 16,000원